

기술분석보고서 건강관리

안국약품(001540)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이소연 책임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안국약품(001540)

신약개발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주력하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

기업정보(2025.06.17 기준)

대표자	어진, 박인철
설립일자	1959.02.12
상장일자	2000.06.15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완제 의약품 제조업
주요제품	의약품 외

시세정보(2025.06.17)

현재가(원)	8,02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051
발행주식수	13,042,420
52주 최고가(원)	8,600
52주 최저가(원)	6,230
외국인지분율	5.31%
주요주주	어진

■ 호흡기 및 순환기 질환에 전문성을 가진 전통 제약사

동사는 1959년 2월에 설립되어,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 6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하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진해거담제시장, 순환기계 시장 등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상과 종합병원을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안국뉴팜(주)와 안국바이오진단(주)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개량신약과 진단키트,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 제약 시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국내 제약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가 예측되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제적 인지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동사는 일본,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전문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24년에 주력 품목인 시네츄라 시럽을 과테말라 등 중남미 7개국으로 수출을 개시하였다. 또한 안과질환 전문업체로 전문의약품 개발을 진행 중이며, 토비콤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AI 및 디지털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기획하여,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B2B, B2C 시장에서의 매출성장 또한 기대되고 있다.

■ 오픈 이노베이션과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미래 역량 강화

동사는 2021년부터 극지연구소, 티씨노바이오, 브이원바이오 등과 치매치료제, 면역항암제와 같은 신약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에 사업목적에 신약개발 연구대행업, 신약개발 자문 및 알선업을 추가하고, 피노바이오와는 ADC개발을 위한 전략투자를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안과사업부를 출범하고 안과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비임상 CRO 시장으로 진출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2,053.9	25.6	96.8	4.7	68.8	3.3	4.5	3.1	44.8	527	12,248	17.4	0.8
2023	2,336.8	13.8	50.6	2.2	10.0	0.4	0.8	0.4	57.3	99	12,040	95.1	0.8
2024	2,711.2	16.0	67.0	2.5	163.4	6.0	10.6	6.0	83.6	1,292	13,082	5.1	0.5

기업경쟁력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성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군을 보유하고 안정적인 매출 실현 · GMP 인증 기반의 CMO 사업 병행과 전략투자, 공동연구를 통한 첨단신약개발, AI 및 디지털 의료기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경영 투명성과 윤리경영이 정착되어 내부 신뢰도가 높음	· 고객 중심 윤리 강령 운영 · 공정거래, 공정선정 원칙 준수 및 오너 경영 기반 안정성 · 자기계발 장려, 근무환경 개선 지속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활성성분의 안정적 추출 및 함량 표준화 기술을 이용한 천연물 추출물 복합 제제화 개발 역량 ·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다약물 복합제(ex.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개발 · 다성분 복합영양소의 안전한 배합 및 흡수율 향상 기술 · GMP 기반의 품질관리 및 제조 기술 ·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빠른 시장 대응형 R&D 체계
주요 제품군 및 대표 약품	· 시네츄라 : 호흡기용제, 진해거담제, 기침, 가래 · 페바로젯 : 순환기용제, 원발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 레보텐션 : 순환기용제, 고혈압 및 심근허혈증 · 슈바젯 : 순환기용제, 원발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 레보살탄 : 순환기용제, 본태성 고혈압 · 토비콤 시리즈 : 비타민 B를 기반으로 한 눈 건강 개선제



[주요 제품: 시네츄라]

시장경쟁력

인구의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안과, 심혈관, 호흡기 등 만성질환 증가 추세 · 예방의학 및 웰니스 시장 확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신흥국 수출 확대	· 일본,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여 수출 · 최근 호흡기용제인 시네츄라를 과테말라 등 중남미 7개국으로 첫 수출 진행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등	· 디지털 의약학정보 플랫폼 'AGMVP' 운영, AI 및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 기반으로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매출 성장 도모 ·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비임상 CRO 시장 진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디지털 헬스케어, 홈뷰티 디바이스, 반려동물 제품군 등 미래 소비재 중심의 친환경 제품 개발로 환경 요소를 반영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지향 ◎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법 준수 및 친환경 경영을 기본 원칙 설정
S 사회책임경영	◎ 공공 건강 증진,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제품 및 서비스 적기 제공 ◎ 고용의 투명성과 조직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 ◎ 협력사와 공존공영의 원칙 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함
G 기업지배구조	◎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하고,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함 ◎ 윤리경영: 준법경영(ISO 37301) 및 부패방지경영(ISO 37001) 국제인증 획득 ◎ 이사회, 감사, 사외이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 유지 ◎ 준법감사팀을 운영하여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I. 기업 현황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헬스케어 기업

동사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전문의약품부터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토비콤 시리즈는 눈 건강기능식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순환기, 호흡기 등의 특화된 영역에서 차별화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여러 바이오 벤처들과 인수합병, 전략투자, 공동연구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개발과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59년 2월 12일에 설립된 중견 제약회사로, 경기도 과천시에 본사와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는 2000년 6월 15일에 상장되었으며,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진해거담제(시네츄라)와 순환기계 전문의약품(레보텐션, 레보살탄, 페바로젯, 슈바젯) 등 전문의약품 중심의 제품군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토비콤' 브랜드를 중심으로 루테인지아잔틴, 두뇌엔 PS, 콜린 미오이노시톨 4000 등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음료형 건강기능식품인 '토비콤 아이타민'과 혈당 및 장 건강을 위한 'AG락토', 관절 건강용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제품군도 시장에 출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였다. 동사는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남미 8개국을 대상으로 시네츄라를 수출하고 있다.

동사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GMP 인증 공장을 중심으로 정제, 시럽, 캡슐, 파우치 등의 제형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뿐 아니라 외부 제약사의 제품을 위탁생산(CMO)하는 방식으로 설비 가동율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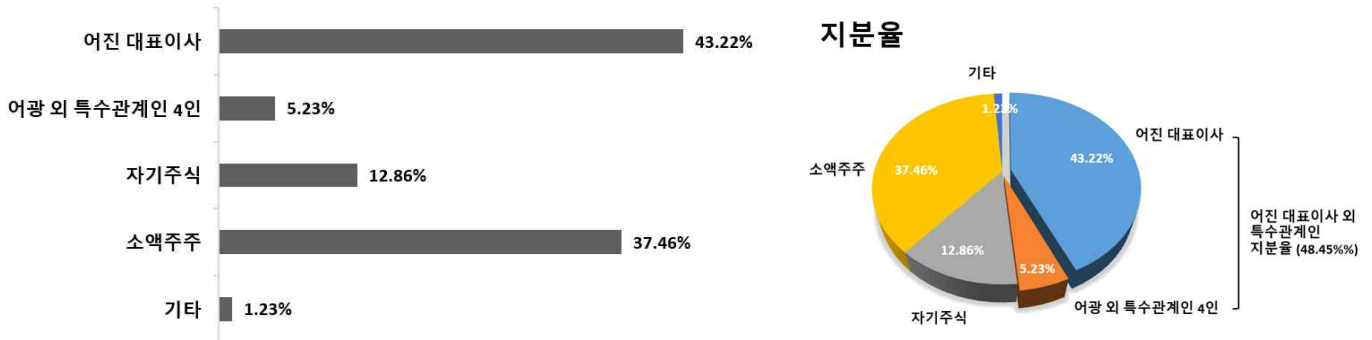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1955. 09	근화항생약품 설립(설립자: 노종형)
1959. 09	안국약품 주식회사로 법인체 변경
1991. 03	KGMP 적격업체 승인
2000. 06	코스닥 등록
2004. 08	향남공장 내 안국약품(주) 합성공정 설립
2010. 10	국제 기준의 cGMP 준공식
2011. 09	국내 제5호 천연물신약 '시네츄라' 출시
2012. 06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2018. 11	부패방지시스템 'ISO37001' 인증 획득
2020. 11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도입
2021. 10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부 국책과제 선정
2021. 12	ISO 37031(준법경영시스템), ISO 37001(부패방지시스템) 통합 인증 획득
2022. 06	디지털 의약학정보 플랫폼 'AGMVP' 오픈
2023. 04	피노바이오와 전략적 투자 계약 체결
2024. 04	과천 신사옥(과천시 과천대로 7길 12, 갈현동) 입주
2024. 12	에이피트바이오와 전략투자 및 공동연구 계약 체결

자료: 동사 홈페이지(2025.06),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의 지분구조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최대주주인 어진 대표이사가 43.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광 외 특수관계인(친인척) 4명의 지분을 5.23%를 합하면, 어진 외 5인(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율은 48.45%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다. 자기주식비율은 12.86%이고, 소액주주 지분율은 37.46%로 전체적으로 소액주주 중심의 유동 물량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동사의 지분구조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는 의약품 중심의 사업을 기반으로, 정관 변경을 통해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 및 뷰티 디바이스 사업을 신규 사업 목표에 추가하며 건강기능식품 및 라이프스타일 관련 영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B2B 중심 구조를 넘어 B2C 채널을 확장하고, 헬스케어 브랜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 다양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을 통해 바이오 진단, 건강기능식품, 진단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 벤처 투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동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개의 비상장 종속기업, 안국바이오진단(주)과 안국뉴팜(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 지분율은 각각 60.1%와 92.6%로, 모두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를 통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안국건강(주), 프리즘스퀘어피에프브이(주), 프리즘스퀘어자산관리(주), 머스트바이오(주), (주)피코이노베이션 등 5개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경영 참여 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헬스케어와 진단용 의료기기 부문에서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구조로 해석된다. 또한, 동사는 치매치료제, ADC(Antibody-Drug-Conjugation), 항체의약품 전문 벤처기업들과 인수합병, 전략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분야 및 매출 현황

동사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연결 매출액은 약 2,7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약품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94.2%로 주축을 이루고, 건강기능식품 및 H&B 부문은 5.7% 내외의 매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의약품 세부 품목 중 진해거담제 '시네츄라'가 약 373.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체 매출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혈압 치료제 '레보텐션'(6.6%), '레보살탄'(4.6%), 고지혈증 치료제 '페바로젯'(4.1%) 등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내수 시장이 전체 매출의 98% 이상이며,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남미 등으로 수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시네츄라 시럽의 중남미 수출을 개시하며 수출시장 확대를 본격화하였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확장으로 신규 수익원을 다변화하였다.

동사는 의약품 도매상 및 병·의원 대상 전문의약품 판매소에 대한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도 B2C 채널 다변화 추구 및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토탈헬스케어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OEM 기반으로 의료기기 및 화장품 수출을 추진 중이다.

[표 2]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사업 부문	매출 유형	품목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의약품 부문	제품 및 상품	순환기 용제	수출	-	-	-
			내수	1087.9	893.9	697.3
			소계	1087.9	893.9	697.3
		호흡기 용제	수출	15.7	6.8	5.9
			내수	590.7	587.2	519.4
			소계	606.4	594.0	525.3
		소화기계 용제	수출	-	0.3	0.3
			내수	296.5	272.6	253.4
			소계	296.5	272.9	253.7
		기타	수출	33.6	51.4	58.2
			내수	530.8	484.0	500.6
			소계	564.4	535.4	558.8
H&B 부문	상품	건강기능식품 등	수출	-	-	-
			내수	156.0	40.6	18.8
			소계	156.0	40.6	18.8
합계			수출	49.3	58.5	64.4
			내수	2661.9	2278.3	1989.5
			합계	2711.2	2336.8	2053.9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 현황

연구개발 역량 역시 회사의 중요한 성장 축으로, 1993년 설립된 R&D 센터는 2024년 과천 신사옥 내 확장이전을 완료하면서 약 3,740㎡ 규모의 전용 연구공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기존의 개량신약 및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연구개발 조직은 약물의 제형 개선, 복합제 개발, 효능 증강 등을 위한 실험실 중심 연구와 함께 임상개발 파트까지 일원화된 구조로, 약물전달시스템(DDS)을 중심으로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연구과제로는 심혈관계 치료제(AG1705), 소화기계 약물(AG2202), 비뇨기계(AG2303) 및 신경계 약물(AG2414) 등이 있으며, 가장 임상 단계가 앞선 과제는 임상 3상의 심혈관계 치료제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국내 허가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한 설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약물 안정성과 복합제 제형 기술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동사는 2025년 1분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 약 43.4억 원(매출 대비 5.7%)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였다. 이는 국내 중견 제약사 기준으로 높은 투자비율로, 동사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며 본격적인 중장기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II. 시장 동향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 의약품 시장

제약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다른 소비보다 우선적으로 지출되어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 인구의 고령화 및 평균 수명 연장,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4대 중증 질환 보장강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 국내외 관련 시장 동향

제약 시장은 완제 의약품 제조 산업에 해당하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과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고 있다. Fitchsolution에 따르면, 국내 제약 산업의 규모는 2019년 209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3.7%로 성장하여 2023년 241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연평균 성장률(CAGR) 9.0%로 글로벌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30년에는 408억 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더불어 의약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약품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2019년 1조 3,902억 달러의 규모였으나, 2023년 1조 7,487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였고, 2030년에는 2조 4,069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나타내어 연평균 성장률(CAGR) 4.6%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2] 국내외 제약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시장 규모



글로벌 시장 규모

자료: Fitchsolution(2025. 02. 20 기준), '2025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시장규모(2019-20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시장의 특징 및 현황

의약품 시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연구개발에서부터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신약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간의 임상시험을 필요로 하며, 성공 확률도 낮은 편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고, 선도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하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일반적인 경기변동이나 계절적 경기 변동에 다소 영향을 받는 편이나, 전문의약품은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타 산업과 구별되고, 화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술집약형 및 연구개발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평균 수명 증가 등에 의해 안정적인 확대가 전망되는 산업이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M&A, 오픈이노베이션, 기술이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산업 구조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 제약사들도 기술수출, 공동개발, 위탁생산(CMO)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술수출 비용, 기술수출과 관련된 마일스톤 발생, 호흡기, 순환기 등 만성질환 치료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요가 기대된다. 더불어 최근 의약품 시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AI기반 신약 후보물질 탐색, 임상시험 설계 최적화,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진료, 비대면 처방, mRNA 백신 기술 등이 부각되며, 융복합적인 데이터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시장규모의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국내외 경쟁사와 비교할 때, 복합제 중심의 전문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병행 포지션, 개량신약과 제형 차별화 역량, 신규 소비자 채널 진입(D2C, 반려동물, 홈뷰티) 등에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제약사 대비 R&D 규모나 해외 진출 범위는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도입과 공동연구, 라이선스 아웃 등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내외 경쟁사 현황

제품명	주요제품	기술 특징	시장범위
동국제약	마데카솔, 인사돌, 센시아, 판시딜,	천연물 기반의 일반의약품 개발에 특화, 다양한 제형(겔, 크림, 캡슐)으로 소비자 친화적 제품군 보유	일반약(OTC) 중심, 국내시장 브랜드 파워, 해외 수출 확대 중, 헬스케어/화장품으로 사업 확장
대원제약	콜대원(시럽제), 오마코, 아스메탈	파우치형 시럽제 등 차별화된 제형 기술 보유, 시럽 포장 자동화 공정 및 CMO 역량	국내 병원 중심(내과, 소아과), 제형 특화 제품 수출도 일부 진행 중
일동제약	아로나민, 지큐랩, 베시칸	프로바이오틱스 및 개량신약 중심 R&D 전략. 신약(IDD-30 등) 개발 병행	국내 일반의약품 및 기능성 건강식품 시장 강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의 수출 확대 중
동화약품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미라셀	전통 일반약 브랜드 파워 보유. 최근 개량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기술 도입 시도	국내 약국 채널 집중, 해외진출 제한적. 최근 부동산 및 자회사 통한 사업 다각화 추진
Pfizer (미국)	리피토, 코미나티, 노바스크	mRNA 기술 선도, 혁신신약 중심의 R&D 강자, 대규모 글로벌 임상 수행 역량 보유	글로벌 175개국, 다국적 제약사 중 시장 점유율 상위권
Novartis (스위스)	엔트레스토, 글리벡, 코센틱스	혁신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영역 선도	유럽, 북미, 아시아 전역, 기술 도입 및 L/O도 활발
Takeda (일본)	엔타이비오, 알룬브릭	희귀질환 및 위장관질환 중심. 샤이어(Shire) 인수로 바이오 신약 포트폴리오 확대	일본, 북미 중심, 연구개발 연간 수천억 투자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복합제와 개량신약 기술 기반의 실용형 R&D로 성장하는 기업

동사는 복합제와 개량신약 중심의 실용적 기술 전략을 기반으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약물전달시스템(DDS) 기술을 통해 약효 지속성과 흡수 효율을 개선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고흡수율과 성분 배합에 중점을 둔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얻고 있다. 국제 품질 인증(KGMP, EU-GMP 등)을 기반으로 한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에서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성 기반의 기술 전략을 통해 제약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진단기기 개발을 통해 기술 영역을 확장 중이다.

■ 복합제 중심의 전문의약품, 개량신약과 건강기능식품의 병행, 제형 차별화 역량 보유

동사의 기술 역량은 의약품 제형 개선, 복합제 개발, 건강기능식품 및 바이오진단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소비재 중심의 기술 다변화도 추진 중이다. 전체적으로는 개량신약 중심의 실용적 R&D 전략을 지향하며, 내부 제형기술력과 파이프라인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 복합제 제형 기술 역량

동사는 복합제(복수 성분 약물 조합) 기술에 강점을 가진 제약사로,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에서 복합제를 다수 출시했다. 대표 제품군인 ‘레보텐션’, ‘페바로젯’, ‘슈바젯’ 등은 각각 성분이 다른 고혈압 치료제를 하나의 제제로 구성하여 복용 순응도 향상 및 약효 유지를 개선한 제품이다. 복합제 개발은 단순한 성분 혼합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약효의 지속성 및 방출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정제 코팅 및 방출 설계 기술을 요구한다. 동사는 실제 임상 적용 가능한 수준의 제형 설계 역량과 생산 기술, 복합제 개발에 필요한 성분 안정성 평가, 방출 속도 조절, 상호작용 억제 기술 등을 자체 보유하여 다수의 복합제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였다.

2. 개량신약 중심의 파이프라인 운영

동사는 신약보다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품목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 파이프라인 운영이 강점이다. 개량신약은 기존 약물의 효과를 개선하거나,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된 의약품을 의미한다. 동사는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개량신약의 전임상 및 임상 연구개발을 수행 중으로, 이는 비교적 짧은 개발기간과 낮은 리스크로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약물전달시스템(DDS) 및 제형 설계 기술

약물전달시스템(DDS)은 약물이 체내에서 목표 부위에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필요한 시점에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기술로, 동사는 이를 자체 제품에 적용해 정량 방출, 장용성 코팅, 서방정 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정제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구 제형에 강점을 가진 정제·연질캡슐 생산 설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물의 생체 이용률(Bioavailability)을 향상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건강기능식품 및 바이오진단 기술

동사는 의약품 외에도 기능성 원료 배합, 고흡수성 설계, 포장 간편화 기술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인 ‘토비콤’, ‘루테인지아잔틴’, ‘식물성 오메가’ 등은 고령층의 눈 건강, 혈행 개선, 뇌 건강 등을 위한 과학적 배합 기반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순 건강보조제 수준을 넘어선 의료기반 기능식품 개발 노하우로 이어지고 있다.

동사의 바이오진단기술은 종속기업인 안국바이오진단(주)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 기술로는 면역진단 기반 키트, POCT(현장진단기기), 인플루엔자 및 감염성 질환 진단기기 개발 등이다. 이 회사는 신속진단(rapid test) 기술과 표적항원 항체반응 기반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 건강관리 또는 개발도상국 보건사업 시장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장 중이다. 헬스케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바이오 시장 접근 기반으로, 향후 개인 건강관리 시장 또는 해외 개발도상국 중심 수출로 확장될 수 있다.

5. 제형 차별화 역량 및 품질관리 기술

동사는 EU-GMP, KGMP 등 국제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정제·시럽제·연질캡슐 등 다양한 제형의 대량 생산기술을 내재화하였다. 또한 일부 제품군은 CMO(위탁생산) 전략도 병행하며, 신공정 자동화 시스템 및 품질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안정된 생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동사는 이외에도 반려동물, 홈뷰티 기기 등 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기술 융합 및 디지털 플랫폼 연계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 PEST 분석

동사는 대한민국의 엄격한 의약품 관련 법규와 규제 환경 하에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약사법, 의료법, 건강보험 제도, 리베이트 금지법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의 약가 통제 정책은 한국약품과 같은 중견 제약사의 수익성에 일정 부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규제 또한 영업활동 방식에 제약을 준다. 한편, ESG 및 윤리경영 강화 요구에 따라 회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준법감사팀을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용하며 법규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각국의 규제기관(예: 미국 FDA, 유럽 EMA)의 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글로벌 규제 대응 역시 중요한 법률적 과제다.

의약품 산업은 국내외 경기변동 속에서도 비교적 경기 방어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동사가 집중하고 있는 만성질환 치료제, 호흡기 질환제,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국내외 원재료 수급 불안, 환율 변동성, 인건비 상승 등은 원가구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료의약품 수급 어려움이 일부 제품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천연물 의약품은 코로나 이후 소비자의 건강 관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수익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는 동사에게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천연물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은 사회적 니즈와 잘 맞물려 있으며, 시네츄라 시럽, 토비콤 시리즈 등이 이를 대표한다. 또한 윤리경영 차원에서 동사는 인권 존중, 다양성 존중, 차별 금지 원칙을 윤리강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직원 복지, 근로환경 개선, 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과 임직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문화도 자리 잡혀 있다. 또한,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상생협력 문화도 적극 실천하고 있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기업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특히 천연물 복합제 개발, 개량신약 기술, 복합제·서방형 제형개발 등 실용적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인 시네츄라 시럽은 천연물 성분의 안정적 표준화, 배합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또한 복합제 개발을 통해 환자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시장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형 제약사 대비 신약 개발 역량은 제한적이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협력 확대, 제형개선, 품질경영(QMS), GMP 제조관리 역량은 매우 안정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빅데이터 기반 신약후보물질 발굴 등 차세대 기술협력의 가능성도 탐색 중이다

[그림 3] 동사 사업의 PEST 분석

➤ Political (정치)

- 엄격한 의약품 관련 법규 및 규제 환경
- 정부의 약가통제 정책
- 각국의 규제기관 기준 충족

➤ Economic (경제)

- 원재료 수급 불안, 환율 변동성
- 내수 중심 구조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증가

➤ Social (사회)

- 글로벌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 ESG 경영에 대한 관심 확대
- 건강 관심 증대, 헬스케어 시장 확대

➤ Technological (기술)

- 천연물 신약개발 경험
-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협력 증대
- 우수한 품질경영, GMP 제조 관리 역량



IV. 재무분석

매출외형 증가추세와 견조한 수익성으로 긍정적인 흐름 지속

동사가 속한 제약산업은 정부 규제 강화, 약가 인하 압력,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원료 공급 불안정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외형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자체 개발한 개량신약을 출시하여 매출 증대의 초석을 만들었으며, 제품의 소유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생산설비의 투자 및 생산인력의 확충을 추진한 것이 매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천 신사옥 이전 및 R&D 센터 확장을 진행하였고, 그로인한 장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어려운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매출 상승 기록

동사는 자궁경부암 진단 유전자칩 개발 및 생산하는 ‘안국바이오진단(주)’와 의약품 제조 및 생산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안국뉴팜(주)’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은 각각 60.1%, 92.6%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기업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안국바이오진단(주)’의 경우 2023년 37.6억 원, 2024년 33.9억 원 시현하여 소폭 감소하였고, ‘안국뉴팜(주)’ 또한, 2023년 113.3억 원, 2024년 110.7억 원으로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은 2022년 2,053.9억 원, 2023년 2,336.8억 원, 2024년 2,711.2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부문은 [의약품 부문]과 [H&B 부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의약품 부문]은 순환기용제, 호흡기용제, 소화기계용제, 기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H&B 부문]은 건강기능식품 등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상세 매출을 살펴보면, [의약품 부문]의 순환기용제는 2022년 697.3억 원, 2023년 893.9억 원, 2024년 1,087.9억 원을 시현, 호흡기용제는 2022년 525.3억 원, 2023년 594.0억 원, 2024년 606.3억 원을 시현, 소화기계용제는 2022년 253.7억 원, 2023년 272.9억 원, 2024년 296.5억 원을 시현하여 세 가지 품목의 경우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였고, 기타 품목의 경우 2022년 558.9억 원, 2023년 535.4억 원, 2024년 564.4억 원을 시현하여 매출의 변동성을 보였다. [H&B 부문]의 건강기능식품 등 품목의 경우 2022년 18.7억 원, 2023년 40.6억 원, 2024년 156.1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은 전년대비 3.8배(284.2%) 증가하였다.

동사의 2025년 1분기 매출은 757.5억 원으로 직전년도 동분기(657.4억 원) 대비 15.2% 증가하였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개량신약을 출시하여 매출 증대의 초석을 만들었고, 제품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생산설비의 투자 및 생산인력의 확충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정부 규제 강화, 약가 인하 압력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견고한 수익성, 긍정적인 흐름 지속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원가율은 2022년 38.5%, 2023년 39.8%, 2024년 38.1%로 변동성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품목별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순환기 원료인 ‘피타바스타틴칼슘’과 ‘발사르탄’의 경우 각각 2022년 22,210원, 502원, 2023년 22,154원, 494원, 2024년 20,115원, 502원으로 ‘피타바스타틴칼슘’은 3년 연속 감소한 반면, ‘발사르탄’의 경우 증감은 있었으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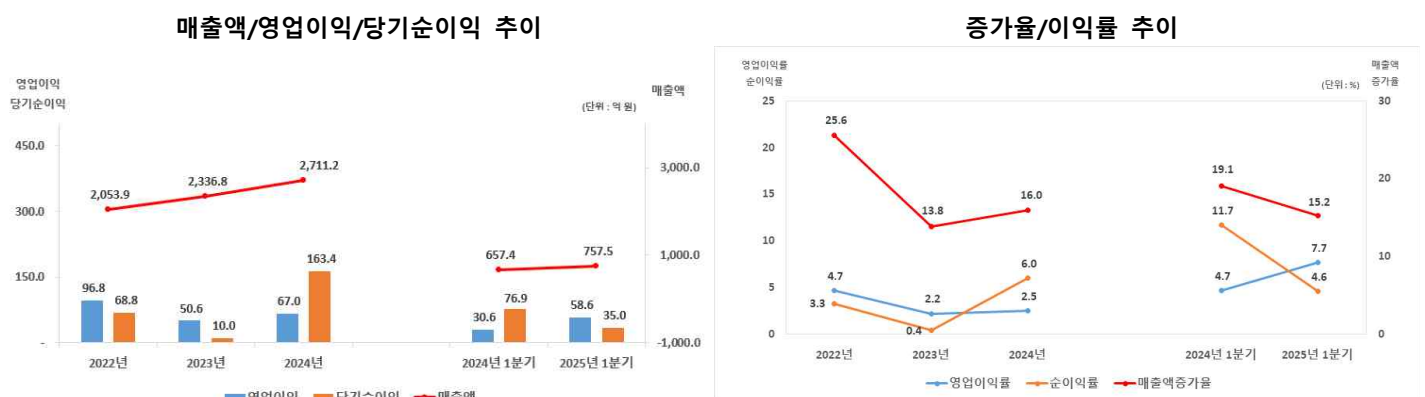
호흡기 원료인 ‘아이비업30%에탄올엑스’의 경우 2022년 253원, 2023년 279원, 2024년 285원으로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였고, 소화기 원료인 ‘트리메부틴말레산염’과 ‘에스-판토프라졸’의 경우 각각 2022년 150원, 3,955원, 2023년 155원, 3,904원, 2024년 156원, 4,091원으로 ‘트리메부틴말레산염’은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에스-판토프라졸’은 가격의 변동성을 보였다.

동사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2022년 96.8억 원(4.7%), 2023년 50.6억 원(2.2%), 2024년 67.0억 원(2.5%)으로 2024년의 경우 매출외형 증가로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기순이익과 순이익률은 2022년 68.8억 원(3.3%), 2023년 10.0억 원(0.4%), 2024년 163.4억 원(6.0%)으로 2024년의 경우 금융비용(33.6억 원)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외 기타수익(162.4억 원)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13.5억 원)을 통해 당기순이익 규모와 순이익률이 2023년 대비 각각 1,537.1%, 5.6%p 증가하여 실적 개선을 기록하였다.

2025년 1분기의 경우 영업이익 58.6억 원(7.7%)을 실현하여 직전년도 동분기 영업이익 30.6억 원(4.7%) 대비 91.2%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당기순이익의 경우 35.0억 원(4.6%)을 실현하여, 직전년도 동분기 당기순이익 76.9억 원(11.7%)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이나, 전반적인 수익성은 견고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분기보고서(2025.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여전히 양호한 수준

동사는 2024년 과천신사옥 취득을 위해 장기차입금 500.0억 원을 신규 조달하였고, 최근 3년간 부채총계는 2022년 692.4억 원, 2023년 869.3억 원, 2024년 1,377.9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부채비율은 2022년 44.8%, 2023년 57.3%, 2024년 83.6%를 기록하였고, 자기자본비율은 2022년 69.1%, 2023년 63.6%, 2024년 54.5%를 기록하여 재무안정성 비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안국건강(주)’(지분율 29.98%), ‘프리즘스퀘어피에프브이(주)’(지분율 22.50%), ‘프리즘스퀘어자산관리(주)’(지분율 25.00%), ‘머스트바이오(주)’(지분율 13.49%), ‘(주)피코이노베이션’(지분율 6.70%)을 관계기업으로 보유하고 있고, 지분법손익 및 자본변동이 동사의 자산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 2024년의 경우 ‘프리즘스퀘어피에프브이(주)’의 지분법손익 30.1억 원으로 관계기업투자가 2023년 117.3억 원에서 2024년 131.4억 원으로 12.0% 증가하였다.

유동성 측면을 살펴보면, 최근 3년도 유동비율은 2022년 198.4%, 2023년 173.1%, 2024년 174.9%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고, 2024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8.4억 원, 단기금융상품 2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1분기의 경우 부채비율 88.2%, 자기자본비율 53.1%, 유동비율 169.5%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분기보고서(2025.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1분기	2025년 1분기
매출액	2,054	2,337	2,711	657	758
매출액증가율(%)	25.6	13.8	16.0	19.1	15.2
영업이익	97	51	67	31	59
영업이익률(%)	4.7	2.2	2.5	4.7	7.7
순이익	69	10	163	77	35
순이익률(%)	3.3	0.4	6.0	11.7	4.6
부채총계	692	869	1,378	1,476	1,427
자본총계	1,547	1,517	1,647	1,566	1,618
총자산	2,239	2,386	3,025	3,042	3,045
유동비율(%)	198.4	173.1	174.9	147.6	169.5
부채비율(%)	44.8	57.3	83.6	94.3	88.2
자기자본비율(%)	69.1	63.6	54.5	51.5	53.1
영업현금흐름	18	-13	49	-111	47
투자현금흐름	64	172	-754	-655	-6
재무현금흐름	-37	-51	572	599	-1
기말현금	182	290	158	123	198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분기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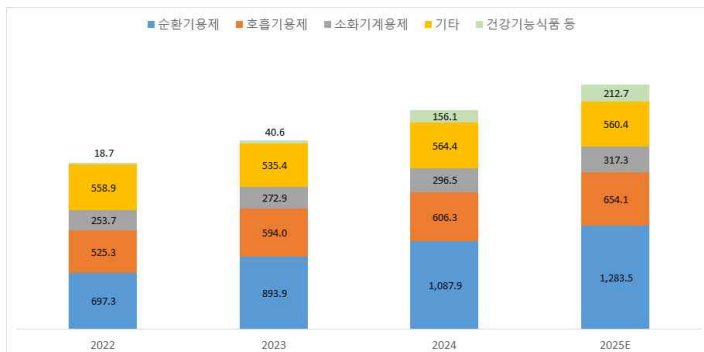
■ 동사 실적 전망

2024년 전년 대비 동사는 약 16%의 매출 성장을 이뤘으며, 이러한 성장 추세가 2025년에도 지속될 경우 연 매출은 약 3,028억 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은 단일 요인이 아닌, 의약품 부문과 H&B(건강기능식품, 소비재) 부문 모두에서의 동반 확장에 기반한 결과로 해석된다. 의약품 부문은 복합제 중심의 전문의약품 매출 확대가 중심이며, ‘레보텐션’, ‘페바로젯’, ‘시네츄라’ 등 주력 제품군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향후 실적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네츄라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매출도 가시화될 것이다. H&B 부문은 2024년에만 284.2% 성장을 기록한 고성장 사업으로, ‘AG락토’, ‘리포좀오메가3’, ‘토비콤 루테인지아잔틴’ 등 기능성 신제품이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자체 온라인 플랫폼 기반 D2C 채널 강화도 실적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동사는 R&D 투자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개량신약 출시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 여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동사는 2025년에도 의약품 사업의 안정성과 H&B 사업의 고성장성이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 3,028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 실적 증가뿐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의 균형 측면에서도 긍정적 구조이다. 향후 개량신약 출시, 바이오진단기기 확장, 글로벌 수출 증대 등이 맞물릴 경우, 2026년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사업부문	품목	2022	2023	2024	2025E
의약품부문	순환기용제	697.3	893.9	1,087.9	1,283.5
	호흡기용제	525.3	594.0	606.3	654.1
	소화기계용제	253.7	272.9	296.5	317.3
	기타	558.9	535.4	564.4	560.4
H&B부문	건강기능식품 등	18.7	40.6	156.1	212.7
합계		2,053.9	2,336.8	2,711.2	3,028.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마케팅 역량 강화 및 미래 신사업 확대 전략 병행

동사는 경영전략 변화를 위한 리더십 재정비를 단행하였으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기존 순환기·호흡기계 중심의 전문의약품 외에도 피부질환 치료제 유통, 고함량 아르기닌 건강기능식품 출시 등 제품군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 미용기기 등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하여 시장 확대를 도모 중이다. 과천 신사옥 완공과 R&D센터 건립을 통해 신약개발 기반의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사업 방향

동사는 최근 경영, 연구개발, 마케팅, 신사업 부문에서 다양한 전략을 전개하며 변화와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전환기로 평가된다.

1. 경영전략 변화를 위한 리더십 재정비

동사는 2025년 지난 1월, 박인철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어진 부회장과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공식화하며 경영전략 재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였다. 최근 급변하는 제약시장의 환경과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와 차별화된 마케팅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박인철 대표이사는 디지털 마케팅과 고객 분석 기반의 전략 수립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영업조직 혁신과 차별화된 마케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궁극적으로, 동사는 이러한 리더십 재정비를 통해 박인철 대표이사가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어진 대표이사가 미래 신사업 발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 분업 체계를 마련하였다.

2. 의약품 부문 중심의 성장 지속과 포트폴리오 확대

2025년 1분기 기준, 757.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순환기계(324.6억 원) 및 호흡기계(178.9억 원) 의약품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하였다. 특히 고지혈증 복합제 ‘페바로젯’이 513.7억 원으로 2024년 1분기(14.5억 원) 대비 254.6% 성장하며 주력 제품으로 부상하였고, 간판제품 ‘시네츄라’는 전체 매출의 14.5%(109.7억 원)를 차지하며 호흡기 제품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피부질환 치료제 ‘지엘이부톡크림5%’의 국내 독점 유통 계약 체결은 피부과 영역에서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의미하며 향후 매출 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건강기능식품 부문 급성장과 셀프 메디케이션 대응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고함량 아르기닌 제품인 ‘액티브 부스터 아르기닌 6000’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에이원더'를 통한 D2C 채널 강화는 1인 가구 증가와 셀프메디케이션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으로, 소비자 접점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4. 사업 다각화: 펫푸드·미용기기 진출 및 통합사옥 완공

2025년 정기주총에서는 반려동물 사료 제조 및 미용기기 제조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며 기존 전문의약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반려동물 영양제 및 홈 뷰티 디바이스 신규 사업 분야로 진출과 브랜드 및 제품 라인업 확장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사업과의 시너지와 소비자 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케어 브랜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국약품(001540)

종합적으로, 동사는 전통적인 의약품 중심 제약사에서 건강기능식품, 미용기기, 반려동물 산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25년은 R&D 센터를 중심으로 한 신약개발 가속화, 건강기능식품 부문의 시장 확대, 조직 재정비를 통한 경영 안정화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리경영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확립이 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증권사 투자의견 예시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5.06.17)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안국약품 주식회사	X	X	X